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 출범

- '30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해 부처·기관 협력 下 수출·수주 지원조직 출범
- 생산적 금융지원 활성화 및 다부처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현장지원 확대

재정경제부는 '26.4.1(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하여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재정경제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와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수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지원단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지원단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통상대응 및 대외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고도화, ▲신성장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1조달러 수출 달성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출금융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해외조달시장 등 분야별 특화 설명회와 업종별·지역별 수출애로 청취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단은 향후 중동상황 등 수출·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다부처에 걸친 복합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출 플러스 지원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代) 과 장 (공 석)
		담당자	사무관 유채연 (02-6000-5778)